

역사 토크쇼의 장르 혼종화:

KBS1 <역사저널 그날> 분석을 중심으로 *

이 중수 **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 연구의 목적은 역사 토크쇼라는 혼종 장르에서 역사를 다루는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고찰하는 데 있다. 역사 토크쇼의 장르 혼종성과 역사의 정서적 전환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기 위해 KBS1 <역사저널 그날>을 양적,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양적 내용분석을 통해 <역사저널 그날>의 전체 에피소드 104편(2013.10~2015.12 방영분)의 시기별, 소재별 분포를 살펴보았다. 질적 텍스트 분석은 조선시대 정조와 관련한 에피소드 5편에 대해 장르분석과 대화분석 방법을 활용해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역사저널 그날>은 형식적 구성요소, 영상 스타일, 대화 내용에서 정보과 오락의 혼합성과 정서적 전환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구체적 특성으로는 첫째, 무거운 내용과 가벼운 유머의 혼합, 둘째, 시청자 눈높이에서 표현, 셋째, 역사적 인물에 대한 감정이입, 넷째, 과거를 통한 현실 비판 등의 패턴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역사 토크쇼의 대중친화적 접근방식이 갖는 사회문화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핵심어: 장르 혼종화, 역사 토크쇼, 역사 다큐멘터리, 정서적 전환, 대화분석

* 이 논문은 2013년 한양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HY-2013-G).

** jslee77@hanyang.ac.kr

1. 서론

텔레비전에서 역사를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객관적 사실 중심의 접근에서 주관적 감정이입을 중시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다. 역사가 우르겐 코카(Jürgen Kocka)는 오늘날 많은 사람이 그들이 어디에서 왔고 자신들은 누구인가를 찾기 위해 역사를 다룬다고 말했다. 과거 역사를 통한 정체성 확립의 욕구, 감정이입과 공감의 추구가 TV 역사 프로그램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다(Gray, 2013, pp. 334-335).

한국 텔레비전에서도 역사를 다루는 새로운 방식을 선보인 프로그램이 등장했다. 기존의 역사 다큐멘터리와 토크쇼 형식을 결합한 ‘역사 토크쇼’ <역사저널 그날>(KBS1, 2013. 10. 26~현재)이다. 시끌벅적한 ‘대학가 맥주집 토크’라는 콘셉트를 내걸고(유희원, 2014), 편안하고 경쾌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역사저널 그날>은 시사교양 프로그램으로 안정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¹⁾

<역사저널 그날>은 형식적, 내용적으로 역사 다큐멘터리와 집단 토크쇼의 장르 혼종성(hybridity)을 전면적으로 내세운 프로그램이다. 지식전달과 객관적 사실성을 기반으로 두는 종래의 역사 다큐와 오락성과 개인적 감정표현을 강조하는 예능 토크쇼를 혼합했다. 역사적 과거인 ‘그날’ 속에 존재한 인물의 내면과 심리에 대한 감정적 공감대를 강조하기에도 유리한 형식이다.

장르 혼종성은 지난 80년대 이후 TV 프로그램의 변화 추세를 이야기할 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개념 중의 하나일 것이다(Turner, 2015). 국내의 역사 다큐나 역사 드라마 연구에서도 사실과 허구, 정보와 오락 장르 혼종성은 중요하게 다뤄져왔다(주창윤, 2004; 하효숙, 2004; 김수정, 2010).

역사 토크쇼는 한편으로 장르 혼종성, 다른 한편으로는 역사에 ‘감정적’으로 이입시키는 ‘정서적 전환’(affective turn)²⁾의 대표적 현상이다. 최근 외국 TV에서는 월투월(Wall to Wall)사의 <1900 하우스> 포맷과 같이 일반인을 과거 역사적 세팅에 투입하여 그 일상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는 역사 ‘재연’(reenactment)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인기이다. 애그뉴(Agnew, 2007)는 이런 현상을 전통적 역사쓰기(historiography)로부터 개인적, 정

1) <역사저널 그날>는 소재와 편성시간대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5%에서 6%의 안정된 시청률을 보이고 있다.

2) ‘정서’(affect)는 최근 한국의 커뮤니케이션, 심리학, 정신분석학 분야에서 주로 ‘정동’(情動)이라는 용어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문맥상 자연스럽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서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다.

서적 체험을 강조하는 ‘역사의 정서적 전환’이라고 불렀다. 한국에서의 퓨전 사극 드라마와 영화 붐도 일종의 정서적 전환의 단면으로 볼 수 있다. 과거 역사에 대한 감정적 몰입, 심리적 해석,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한 풍자와 조롱, 혹은 감정적 해소 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이기형, 2007; 김수정, 2010; 손희정, 2015).

이 연구가 <역사저널 그날>에 주목하는 이유는 역사 프로그램의 장르 혼종과 정서적 전환을 동시에 잘 보여주는 흥미로운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역사저널 그날>은 KBS1이 지난 1990년대 이후 방영한 일련의 역사 프로그램[<역사스페셜>(1998~2003; 2009~2012), <HD 역사스페셜>(2005~2006), <한국사 傳>(2007~2008) 등] 속에서 강조해 온 ‘대중적 역사 전달’의 방식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집단 토크쇼’라는 오락 장르적 요소를 결합시키고 감정이입을 강조하면서 더욱 대중친화적 프로그램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의 TV 역사 담론의 변화뿐 아니라 전반적 지식전달 장르의 연성화 트렌드를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그 내용과 접근방식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은 유의미한 연구 작업이 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역사저널 그날> 분석을 통해 역사 토크쇼의 장르 혼종성 속에서 ‘역사의 정서적 전환’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 그 문화적 함의는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첫째, 장르 혼종성 차원에서는 정보와 오락(역사 다큐와 집단 토크쇼), 사실과 허구(역사 다큐와 사극)의 장르적 요소들이 어떻게 융합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둘째, 역사의 정서적 전환 양상은 역사적 인물·상황에 대한 감정이입과 정서적 공감대 형성, 과거와 현재의 연결방식 기제 등을 통해 밝혀내고자 한다.

두 가지 차원의 분석이 이뤄졌다. 먼저 2013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방영된 <역사저널 그날> 전체 에피소드 104편의 시기별, 내용별 유형에 대한 양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질적 텍스트 분석은 역사 프로그램의 대중성, 오락성, 정서적 전환의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역사적 인물에 관한 에피소드를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2000년대 후반부터 한국의 대중문화계(드라마, 소설, 영화)와 역사학계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끌며 현대적으로 재조명받고 있는 ‘정조’에 대한 에피소드(5편)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다. 텍스트 분석은 장르분석과 대화분석(conversation analysis) 방법을 절충하여 이뤄졌다.

2. 장르 혼종화와 역사 토크쇼

‘역사 토크쇼’는 새로운 장르 혼합물이다. 2000년대 이후에는 ‘난잡한 혼종성’(promiscuous hybridity) 이라고 불릴 만큼(Turner, 2001) 다양한 리얼리티 프로그램, 정치 토크쇼 장르 등이 등장하기도 했다. 많은 장르 연구자들이 합의했듯이 장르의 형성과 발전은 텍스트, 산업, 수용자와 역사적 맥락 간의 복합적 상호관계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다(Neale, 1980; Creeber, 2015; 원용진·주혜정, 2002). 역사 토크쇼라는 장르는 높은 문화적 취향을 강조하는 역사 다큐와 대중적 오락성을 대표하는 토크쇼의 혼합물이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여기에 제이슨 미텔(Jason Mittell)의 ‘문화적 장르분석’(cultural genre analysis)은 유용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주요 원칙 중 하나는 장르를 문화적 위계질서와 권력관계의 넓은 시스템 안에 위치시키는 것이다. 특히, ‘토크쇼’와 같은 장르는 미학적 가치, 수용자 정체성, 리얼리즘 코드, 그리고 ‘취향의 위계질서’ 안에서 설명되어야 한다. 문화적 행위자들은 장르를 차별화하는 접합(articulation) 행위를 통해 끊임없이 장르의 정의, 의미와 가치를 재조정하려고 한다(Mittell, 2004, p. 178).

문화 장르분석의 틀을 적용해서 역사 재연 리얼리티쇼에 대한 학계, 수용자, 제작진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다. 역사 재연 리얼리티쇼는 역사 다큐의 장르적 요소(사회자, 전문가의 이성적 설명 중심)와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장르적 요소(일반인 참가자, 사적 영역에서의 경험, 감정, 친밀감 표현 중심)을 혼합한 형태를 띤다. 역사 재연 리얼리티쇼가 처음 등장했을 때, 역사 다큐를 오락적으로 재포장하는 ‘질 나쁜 장르’(bastard genre), 다시 말해 ‘과거’의 지나친 오락화로 역사 프로그램이 가져야 할 분석적 시각을 놓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Agnew, 2007; McEloy & Williams, 2011).

다른 한편으로 오락적 역사 접근방식은 ‘생생한 체험’을 통한 교육과 정보전달의 가치를 갖고 있다. 드라마틱한 내러티브를 통해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장르적 특성은 경쟁적 TV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역사 다큐의 주시청자인 중산층의 나이 든 연령대보다 젊은 수용자 층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역사 재연 장르는 대중적 어필, 사적 경험의 가치 등이 접목되면서 광범위한 문화적 스타일과 역사 접근방식을 반영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역사 다큐의 오락적 전환은 전문지식의 대중화와 지식 패러다임의 확장과도 연관된다. 그간 학계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전문지식이 대중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이다. 도나 해러웨이(Donna Haraway, 1997)는 새로운 학술 자본주의(academic capitalism) 패러다임

하에서 대학-산업-국가 관계 변화가 지식 생산 패러다임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한다. 학술 자본주의란 학계의 연구 결과물을 공공교육과 서비스에 활용하려는 지식의 민주화와 이를 상품화하려는 상업화 경향을 의미한다. 과학적 지식을 대중화하려는 욕구와 동시에 이를 자본화하려는 산업적 욕구가 맞물린 결과라는 것이다. 대표적 사례로 PBS의 역사재연 프로그램인 <로마의 목욕탕>(Roman Bath)을 들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전문적 역사 지식을 멜로 드라마적 요소를 가진 재연과 실험상황 안에서 생생하고 흥미롭게 전달하고 있다(Haraway, 1997, p. 267; 이종수, 2016, 95-97쪽 재인용).

한국의 역사 토크쇼의 등장은 KBS1 역사 프로그램의 전반적 변화의 틀 속에서 살펴볼 수 있다. KBS1은 90년대 중반 이후 <역사의 라이벌>(1994), <역사추리>(1995~1997), <TV 조선 왕조실록>(1997~1998), <(구)역사스페셜>(1998~2003)과 <HD 역사스페셜>(2005~2006), <역사스페셜>(2009~2012), <한국사傳>(2007~2008) 등 다수의 역사 다큐멘터리를 주요 시간대에 편성해왔다. 과거 역사는 방송의 공영성을 담보하는 문화적·사회적 가치를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시청자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대중적이고 매력적인 소재이기 때문이다.

KBS의 대표적 역사 다큐멘터리인 <역사스페셜>의 기획 의도는 ‘역사의 대중화’이다.³⁾ 역사적 지식을 흥미롭게 전달하기 위해 재연, CG 그래픽, ‘추리 기법’ 등이 사용되기도 했다(김기덕, 2002). <HD 역사스페셜>에서는 더욱 과감하고 흥미로운 영상구성과 주제 전개방식을 선보이고 있다. 가상 스튜디오의 적극적 활용, 시공간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인터뷰, 드라마적 구성을 활용한 재연 등 다양한 영상미학을 선보였다(신명희·김창숙, 2006).

<역사스페셜>이 새로운 영상 구성 속에서도 대부분 진행자 서술에 의존하는 ‘설명적’ 특성이 두드러진다면, <한국사傳>은 극화된 재연 장면에 의존하여 스토리텔링에 의존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역사 다큐에서의 재연 장면의 과도한 사용은 역사 프로그램에서의 극적 구성과 역사적 상상력의 범위에 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김훈순·김숙, 2010). 역사 다큐인 경우, 아무리 재연 등의 역사적 상상력이 허용된다고 해도 해당 시대의 상황과 분위기, 그리고 다른 조건과 잘 부합하는 역사적 진실성

3) <역사스페셜>은 1998년 10월 17일부터 2003년 6월 21일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8시에서 9시까지 총 214회 방송된 대표적 KBS 역사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폐지가 결정되자 프로그램 폐지 반대 네티즌 모임이 만들어져 서명을 KBS에 전달하는 등 화제를 모았다. 시청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KBS는 광복 60년이 되는 2006년 5월 <HD 역사스페셜>(2005~2006)이란 이름으로 이 프로그램을 부활시켰다. 이어 <역사스페셜>이란 이름으로 2009년 7월 4일부터 2012년 12월 13일까지 총 126회 방영되기도 했다(남성우, 2006).

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는 역사 프로그램 제작자나 역사학계의 텔레비전 역사물의 대중화 전략에 대한 복합적 인식을 반영한다. 즉, 일반인의 역사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다는 점에는 긍정적이지만, 영상 매체를 통한 역사 재구성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피상성, 극적 요소를 강조하기 위한 사실왜곡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역사학계 내에서도 역사의 전문성과 대중성을 상호모순이 아닌 상호보완의 관계로 인식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서재석, 2001; 김기택, 2002). 역사 토크쇼는 역사 다큐의 대중화에 대한 문화적 인식변화와 더불어, ‘대중친화적’ 지식전달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경향과 더불어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문지식 장르와 토크쇼의 결합은 역사뿐 아니라 과학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과학 버라이어티 토크쇼인 <궁금한 일요일, 장영실 쇼>(KBS1, 2015. 5. 10~현재)이다. 과학, 인문, 철학을 아우르는 융합적 시각으로 일반인들이 과학적 지식에 친숙하고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게 만든 포맷이다. 또한 “박물관에 갇혀 있는 고루한 역사는 가라”라는 슬로건을 내건 EBS의 <역사채널 e>은 5분 내의 포맷으로 역사 지식을 간결하고 감각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는 <지식채널 e>와 같은 압축적이고 분절화된 에피소드형 지식전달 포맷의 유행과도 무관하지 않다.⁴⁾

한국에서의 역사 토크쇼의 등장 배경은 정보 장르와 오락 장르의 혼합에 대한 문화적 인식변화이다. 오락적 장르 요소에 대중친화적, 반엘리트성, 일상성 가치가 접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역사 토크쇼>라는 혼성 장르는 정보, 오락 장르의 문화적 위계질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전반적 지식전달 패러다임의 변화, 오락적 재구성을 통한 지식 콘텐츠의 상업화 전략과도 연관되어 있다. 지식의 대중화와 상업화가 만나는 지점이기도 하다.

4) 임중수(2011)는 <지식채널 e>의 압축적 에피소드형 콘텐츠를 트랜스 미디어 환경에서 산업적 전략으로 설명한다. 미시적, 분절적 지식 콘텐츠는 시장성 있는 ‘지식 콘텐츠’로 재활용하기 유리하기 때문이다.

3. TV 역사프로그램의 새로운 접근: 정서적 전환

1) 역사적 인물에 대한 감정이입

‘감정’, ‘정서’, ‘느낌’, ‘감수성’ 등은 최근의 학문적 영역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다. 이성에 대한 감수성의 확장, 물질적 산업노동에 대한 비물질적 지식, 감정, 돌봄 노동의 확장, 인식과 지식에 대한 몸과 감각의 확장 등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영역에서 정동(affect)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기 때문이다(Hardt & Negre, 2004: 김예란, 2010, 154쪽 재인용).

영어단어 정서(affect)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감정을 표현하는, 감정과 느낌에 영향을 주는’이라는 뜻이다. 감정의 변이와 이행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정서는 무의식적, 전담론적(pre-discursive)인 신체적 반응(심장 박동, 얼굴이 붉어짐, 눈물이 고임)과 같이 즉각적인 것이다. 이에 비해 감정은 대체로 사회적, 담론적 과정(언어)에 의해 매개된다(Trigg, 2014, p. 7). 이론적 시각에 따라 때로는 정서를, 때로는 감정(emotion)을 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념으로도 보고 있다. 이런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정서’를 ‘감정’의 변이와 이행을 불러일으키는 운동성이라는 개념으로 보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Ahmed, 2004).⁵⁾

서로 다른 학문 전통 속에서 ‘정서적 전환’이 논의되기 시작한다. 1990년대 후반 이후 미디어, 젠더, 그리고 문화연구 분야에서의 ‘정서적 전환’은 ‘친밀성의 정치학’과 더불어 활발하게 논의된다. 로렌 버렌트(Lauren Berlant)는 ‘친밀성의 정치학’(politics of intimacy)은 ‘정서적 전환’의 등에 올라타서 사회적 적대감과 투쟁의 공간으로서의 공론장을 장악했다고 말했는데 그 결과 시민의식은 개인적 행위와 가치, 그리고 내셔널리티를 느낌과 트라우마의 문제로 재구성하게 되었다(Koivunen, 2001). 이희은(2014)은 감정이론을 접목한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큰 함의를 사적-공적, 개인적-정치적이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사적이고 개인적인 것이 곧 정치적, 사회적임을 이론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49쪽).

역사학에서의 정서적 전환은 세계대전 종전 이후의 역사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무시되

5) 감정(emotion), 정서(affect), 느낌(feeling) 등은 이론적 배경과 맥락에 따라 상당히 다른 의미를 갖는다. 철학, 심리학, 정치학, 신경과학, 문학, 역사, 예술과 문화연구 등에서 서로 경쟁적이고 때로 보완적 개념 정의가 사용된다. 국내 커뮤니케이션 학계에서도 다양한 용어가 혼용된다. 이에 대한 논의는 강진숙(2014)의 연구와 정수영(2015)의 연구를 참조할 것.

있던 ‘감정’의 가치를 재발견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로젠스톤(Rosenstone, 1998)은 정서적 필름(affective film)을 전통적 역사의 서사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대안으로 보았다. 이와 더불어 역사학계에서의 정서적 전환에 대한 논란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한다(Hemmings, 2005; Kosofsky Sedgwick, 2003).

‘역사의 정서적 전환’(history’s affective turn)이라는 개념은 애그뉴(Agnew, 2007)가 역사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의 ‘재연’⁶⁾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면서 유행시킨 개념이다. 대표적 포맷인 〈1900년대 하우스〉는 시청자가 편안히 ‘현재’ 시간 속에 머물면서 자신과 같은 일반인이 과거의 세팅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대리 경험할 수 있게 만든다. 일종의 ‘시간여행자’(time traveller)가 된 일반인 참여자의 모습을 통해 시청자 역시 ‘살아 있는 과거’를 정서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 애그뉴는 재연 역사 프로그램에서의 정서적 전환의 특성을 첫째, 과거에 대한 추정적 해석, 둘째, 시간성의 붕괴, 셋째, ‘정서’의 강조와 같이 요약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 그 자체보다 과거에 대한 일종의 심리적 경험과 ‘공감적 정체성’의 중요성을 중요시하는 역사 접근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⁷⁾

역사 접근에서의 감정과 재연의 중요성은 콜링우드(Collingwood)의 역사 철학에서 그 학문적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콜링우드는 〈역사의 아이디어〉(*The idea of history*, 1946)에서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려는 역사가들에게 있어 경험과 공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역사는 과거의 경험을 재연하거나, 과거의 사고를 다시 생각하는 것(re-thinking) 이어야 한다”는 것이다(p. 7).

2) 과거와 현재의 연결: ‘상상력’과 ‘공감’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이다”라는 E. H. 카(Carr)의 유명한 경구가 있다. 역사란 것이 ‘언어’를 매개로 이미 누군가의 시각에서 쓰인 것이고, 또한 현재적 시각

6) 그간에 지엽적 문화적 현상으로 여겨져 왔던 ‘재연’의 유행은 2000년대 들어 역사학계에서 새로운 주목을 받는다. 재연을 엄격하게 정의할 필요성(Agnew, 2004; Cook, 2004; McCalman, 2004)도 제기되었지만, 현재 재연은 다양한 형태와 실천을 아우르는 활기찬 영역으로 광범위하게 승인되고 있다. 최근 학자들은 재연이라는 용어를 역사 체험 박물관, 기술적 재구성과 ‘노스텔지어’ 장난감에서 문학, 영화, 사진, 비디오 게임, 텔레비전 쇼, 그리고 역사적 공연에 투입된 사회적 그룹들까지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Agnew, p. 300).

7) 대중적 역사 프로그램인 〈당신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Who do you think you are?*, BBC, 2004~현재)도 이런 심리적, 감정적 경험을 강조하고 있다. 유명인들이 자신의 가족사의 뿌리를 찾아 일종의 ‘감정적 여행’을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포맷이다. 개인의 가족사를 추적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당시의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이종수, 2015, 49쪽).

으로 끊임없이 재구성될 수밖에 없다는 구성주의적 역사주의 시각이다. 한 발 더 나아가 포스트모던 역사관(Crowell, 1998)에 의하면 실상 “과거는 어떤 얼굴도 없다”(The past has no face). 이런 역사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하이든 화이트(Hayden White, 1981)의 내러티브 이론이다. 내러티브즘은 결국 과거의 모든 역사적 사실에 ‘내재적 의미’는 없으며, 오직 서사행위 그 자체를 통하여 역사적 의미가 생겨난다는 믿음이다.

최근 들어 역사 다큐와 역사 드라마 등의 서사전략은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역사 다큐에서 다양한 재연과 CG 효과를 통한 과거 인물과의 만남 등의 시각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마치 역사의 그 현장과 직접적으로 마주치는 듯 하는 느낌을 자아내고 있다(신명희·김창숙, 2006). 드라마 분야에서도 기록적 서술보다는 개연적, 상상적, 허구적 서술 방식이 점차로 늘어나고 있다(주창윤, 2004). 역사적 상상력을 통해 과거의 재구성과 재경험을 강조하는 다양한 역사 서술방식이 허용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상상적 역사 서술방식이 관심을 끌게 되면서 최근의 퓨전 사극은 과거의 인물을 현대인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현대적 캐릭터로서 접근하는 사례들도 늘고 있다. 이기형(2007)은 퓨전 사극에서 현대적 캐릭터와 그들이 체험하는 사적 영역의 고뇌를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이를 사극에 등장하는 주요 캐릭터의 ‘내면풍경의 변화’라고도 명명하였다. 대표적 인물은 바로 드라마 <이산>의 정조이다. <이산>은 정조라는 역사 속 인물을 다면적 복합성을 지닌 입체적 인물로 그려내면서 정서적 공감을 높이고 있다. 과거의 인물이지만 ‘근대 개인들이 겪는 주체경험’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김수정, 2010, 84쪽).

다른 한편으로는 사극의 현실 정치에 대한 환기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사극 내의 대사와 상황이 현실 정치를 연상시키면서 과거를 통한 현실 비판과 풍자로서 시청자에게 재미를 주는 것이다. 과거의 정치사극과는 달리 최근의 사극(<이산>, <대왕세종>, <한성별곡정>, <선덕여왕>, <뿌리 깊은 나무> 등)은 과거 역사를 통해 ‘현재’의 정치적 담론을 풀어놓기 시작하며, 정치와 리더십의 문제를 전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다(김수정, 2010).

손희정(2015)은 2000년대 이후 등장한 퓨전 사극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을 국가의 과거를 바탕으로 한다는 역사성과 동시대에 조응하는 해석과 창작을 바탕으로 한다는 당대성의 ‘노골적 공존’이라고 말했다. 최근 유행하는 퓨전 사극들은 부도덕한 권력에 대응하는 정의로운 개인과 선군의 이미지를 강조하는데 그 결과물이 <광해>와 같은 선군의 이야기이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런 퓨전 사극들은 현재 한국인이 근대 국가로서 한국을 상상하는 방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조선에서 이미 내재적으로 서구적 근대화가 시작되고 있었으며, 이런 내재적 자본주의 맹아론이 주목하

는 숙종-영조-정조에 이르는 시기 중 특히 정조 집권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근대 국가의 태동기로 상상되는 영·정조 시대가 최근 사극과 다큐멘터리에 많이 등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122쪽). 또한 현재의 불확실성과 정치적 열망 속에서 과거를 재발견하고자 하고자 하는 시도로도 볼 수 있다.

4. 분석 대상 및 분석 방법

이 연구의 목적은 <역사저널 그날> 분석을 통해 역사 프로그램의 장르 혼종성과 정서적 전환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대별, 소재 유형별 내용분석과 선정된 개별 에피소드에 대한 질적 텍스트 분석이 실시되었다.

먼저, 프로그램이 다루는 역사적 시대와 소재 유형의 전체적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 프로그램 정체성을 가늠하고, 대표성을 띄는 에피소드를 선정할 수 있는 경험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내용분석은 2013년 10월 26일에 시작하여 매주 1회씩 2015년 12월 27일까지 방송된 전체 에피소드(104편)를 대상으로 했다.⁸⁾ 내용분석을 통해 시대별(삼국시대, 통일신라·발해, 고려, 조선, 근현대사), 소재별(역사적 인물, 사건, 유적, 생활사·풍속사) 빈도를 살펴보았다.

텍스트 분석의 대상은 전체 프로그램의 시기별, 내용유형별 대표성을 띠면서 동시에 이 연구의 목적상 이론적 타당성을 갖는 샘플을 선정하였다. 일종의 이론적 샘플링(theoretical sampling)으로 이 연구의 핵심개념인 대중성과 정서적 접근의 대상으로 적합한 에피소드 사례를 선정하였다. 과거인물에 대한 정서적·감정적 개입, 현대적 소환(어필, 과거의 현재적 투사와 의미부여) 등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에피소드로 18세기 조선의 왕 ‘정조’에 관한 에피소드를 선택했다.

정조를 선택한 이유는 대중적 인기와 현대적 재평가 때문이다. 정조는 과거의 인물이지만 현재 한국인들이 쉽게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드라마틱한 요소(공적 고려, 개인적 트라우마, 죽음의 미스터리 등)를 가진 인물이다. 거기에 이상적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한국인의 갈망이 투영되기도 한다. 이인화의 <영원한 제국>을 필두로 1990년대 후반 이후 한국 사회에 일종의 ‘정조 신드롬’이 일기 시작했다(김백철, 2011).⁹⁾ 2000년대 이후 정조 신

8) 48회 방송 1주년 특집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9) 한국의 역사학계에서는 90년대 후반 이후, <영조와 정조의 나라>(박광용, 2000), <정조의 철인정치의 시대>(이덕일, 2008), <정조와 18세기>(푸른 역사, 2013), <정조의 생각>(김문식, 2011)

드롬은 다양한 대중문화물(소설, 드라마, 영화 등)을 통해 확산된다. 2000년에서 2014년 사이 정조 관련하여 총 9편이나 되는 TV 드라마가 방영되었다. 이 가운데 <이산>(MBC, 2007~2008)은 시청률 20%를 넘는 성공을 거두면서 정조 신드롬을 본격화했다.¹⁰⁾ 여기에 베스트셀러급 소설과 영화도 가세하면서 정조는 그야말로 2007년 이후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조선의 왕으로 자리를 굳히게 된다.¹¹⁾

<역사저널 그날>에서는 정조와 정조 시대 인물에 관한 에피소드가 총 8편 방영되었다. 이 가운데 정조, 혹은 정조와 직접적 연관성이 강조되는 5편을 텍스트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텍스트 분석은 장르분석(genre analysis)과 대화분석의 방법론을 절충하여 실시하였다. 장르분석에서는 실버브랫(Silberblatt, 2007)이 제시한 장르의 공식적 요소(formulaic elements)¹²⁾를 중심으로 <역사저널 그날>의 형식적 포맷, 영상스타일, 내용 구성에 역사 다큐와 집단 토크쇼의 장르적 요소들의 혼합 경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토크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담’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대화분석(conversation analysis)의 방법론적 기법을 활용했다. 대화분석은 담화분석(discourse analysis)의 특별한 양식으로, 주로 일상에서의 구어적 대화를 사회학적, 언어학적으로 분석하는데 사용되어왔다(Chalari, 2009).¹³⁾ 대화분석의 목적은 인과적 대화나 제도적 담화(학교, 법정 등)의 구조와 패턴을 서술하는 것이었다. 주로 텍스트 언어학이나 사회학에서 일상

등 정조 시대의 현재적 재조명이 활발히 이뤄져왔다. 2016년 1월 임금의 일기 형식인 <일성록>의 정조대 부분이 한국 고전연구원에서 완역되면서 정조의 인간적 측면과 위대함이 강조되기도 했다.

10) 2000년대 이후의 정조를 다룬 드라마는 <소설 목민심서>(KBS, 2000), <홍국영>(MBC, 2001), <한성별곡>(KBS, 2007), <정조암살미스터리: 8일>(CGV, 2007), <이산>(MBC, 2007~2008), <바람의 화원>(SBS, 2008), <성균관 스캔들>(KBS, 2010), <무사 백동수>(SBS, 2011), <비밀의 문: 의재 살인사건>(SBS, 2014) 등이다. 이 가운데 드라마 <이산>이 대대적 인기를 끌면서 정조는 2007년 대중문화 영역에서 ‘가장 강력한 아이콘’으로 전면에 등장한다(노순동, 2007, 10, 22).

11) 대표적 소설은 김탁환의 정조시대 3부작인 <방각본 살인사건>(2003), <열녀문의 비밀>(2005), <열하광인>(2007)이다. 여기에 이덕일의 <조선 왕 독살 사건>, 이정명의 <바람의 화원> 등 2000년대 후반 정조시대에 관련된 소설만 10여종이 넘는다. 영화계에서도 1995년 <영원한 제국> 이후, <미인도>(2008), <조선명탐정: 각시투구꽃의 비밀>(2011),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2012), <역린>(2014), <사도>(2015) 등 정조 관련 영화가 제작되었다.

12) 실버브랫(2007)은 장르공식(정형화된 요소)을 ① 정형화된 전제(premise), ② 정형화된 구조, ③ 정형화된 플롯(중심·하위 플롯), ④ 전형적 캐릭터, ⑤ 정형화된 세팅과 소품(trapping) 등으로 나누고 있다.

13) 대화분석은 해럴드 가펩클(Harold Garfinkle)과 어빙 고프만(Erving Goffman)의 민속담론적(ethnomethodology) 전통에 기초하고 있으며,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사회학자 하비 삭스(Havey Sacks), 에마누엘 세그로프(Emanuel Sehglloff), 게일 제퍼슨(Gail Jefferson) 등에 의해 발전되어왔다.

표 1. 텍스트 분석 대상 에피소드

회차	방영일자	타이틀	참석자
1회	2013, 10, 26	정조 - 죄인의 아들, 왕이 되다	진행: 최원정 아나운서 패널: 신병주(건국대 역사학과 교수), 김문식 교수(단국대 역사학과 교수), 류근(시인), 이해영(영화감독)
2회	2013, 11, 2	정조 최후의 날 -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	진행: 최원정 패널: 신병주, 김문식, 류근, 이해영
61회	2015, 2, 7	아바마마, 소자의 죽을죄가 무엇입니까 - 사도세자	진행: 최원정 패널: 신병주, 김문식, 최태성(대광고 역사교사), 류근, 이윤석(방송인)
71회	2015, 4, 26	조선의 다빈치 정약용, 정조를 만나다	진행: 최원정 패널: 신병주, 김문식, 최태성, 류근, 이윤석
74회	2015, 5, 17	정조, 소상인들의 눈물을 닦아주다	진행: 최원정 패널: 신병주, 김문식, 최태성, 류근, 이윤석

속 대화를 연구하는 데 많이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토크쇼, 시사프로그램 속 대담 내용을 분석하는 데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Hamo, 2006; Patrona, 2012).

일리(illie, 1999)에 따르면 토크쇼에 나타나는 전형적 질문은 정보도출형, 대담도출형, 행위도출형, 정서적 반응도출형의 4가지로 나타난다. 또한 질문과 응답은 하나의 짝패(adjacent pair)를 이룬다. 짝패는 대화가 관습적으로 구성되면서 하나의 짝을 이루는 대화의 단위다. 대표적으로 질문-답변, 제안-거절·승낙, 인사말-인사말 등이다. 토론 프로그램의 경우 사회자 질문-대담자 답변-사회자 소감 및 부연설명으로 구성되는데 만 죽걸기-격화된 감정표현-강화된 논지 재확인 등의 짝패 대화 패턴도 있다(Wooffitt, 2005, pp. 87-88: 박지영·김예란·손병우, 2014 재인용).

이 연구에서는 <역사저널 그날> 대담에 사회자 질문-패널들의 응답 유형(정보 확인, 설명 확인, 정서표현 질문과 응답), 대화의 순서교대(turn taking), 짝패 등의 개념을 활용하여 토크쇼 담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전문적·역사적 정보 담론이 어떻게 친밀하고, 현재적이고, 대중적이고 일상적인 담화의 형식으로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다.

5. 분석 결과

1) 양적분석 결과: 시대와 소재 유형

(1) 시대별 분포

시대별 분포 상 가장 많이 다뤄진 시대는 조선시대로 총 105편¹⁴⁾ 중 72편(68.6%)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삼국시대가 19편(18.1%), 근현대사가 6편(5.7%)이었다. 통일신라와 발해, 고려는 각각 4편씩(3.8%) 방송되었다. 방송 초기였던 2013년 10월부터 2015년 중반까지는 대부분 조선시대와 관련한 에피소드였으나, 이 시기 이후부터 최근까지는 삼국시대가 많이 다뤄지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 특징이다(〈표 2〉).

시대별 분포가 조선시대에 편중된 것은 〈역사저널 그날〉 역시 기존의 역사 다큐가 갖고 있는 역사적 기록 자료(사실성, 증거성)의 중요성 때문이다. 제작 현장에서 역사 다큐멘터리의 소재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결국 기록 자료의 충실성이다. 조선시대는 실록이나 승정원일기 등의 사료는 물론 개인 문집에 이르기까지 역사 다큐멘터리를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자료가 많다. 실제로 한국의 대표적 역사 다큐멘터리인 〈역사스페셜〉(KBS, 1998~2002)에서 가장 많이 다뤄진 시대가 바로 조선시대였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조선시대의 기록이 풍부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된다(남성우, 2006). 또 다른 이유로는 조선시대가 시기적으로 현재와 가까워 시청자가 공감하며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현재의 사회적·문화적 인식과의 유사성으로 과거사를 통해 현대를 비춰볼 수 있는 여지가 많고 그만큼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는 대중적 요소가 많다. 이와 같이 기록적 증거성과 대중적 어필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조선시대에 편중된 이유라고 볼 수 있다.

표 2. 시대별 분류

구분	편수	비율
삼국시대	19	18.1%
통일신라·발해	4	3.8%
고려	4	3.8%
조선	72	68.6%
근현대사	6	5.7%
합계	105	100.0%

14) 2013년부터 2015년 말까지 방영된 〈역사저널 그날〉의 방송 편수는 100회 특집편성을 제외하고 총 104편이나, 40회와 41회 사이에 편성되었던 특집방송에서 조선시대와 고려시대가 함께 다루어져 시대별 총합이 105편이 되었다.

(2) 소재별 유형

전체 에피소드의 소재별 유형을 크게 4가지 대유형과 세부유형 9개로 분류하였다. 15) 분석결과, 총 104편 중 왕에 관한 에피소드가 37편 (34.9%)에 걸쳐 다루어져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역사적 위인 중 확실한 기록이 존재하는 실존인물에 관한 에피소드가 22편 (20.8%)을 차지하였으며, 전쟁이 16편 (15.1%), 역사적 건축물, 장소, 유물 등이 8편 (7.5%)으로 나타났다(〈표 3〉).

가장 많이 다뤄진 소재 유형인 왕에 관련된 에피소드는 주로 왕권, 왕족, 당시의 정치적 인물과의 갈등이 첨예하게 드러난 사건이 중심이었다. 특히 고종, 세조, 세종, 정조에 관한 에피소드가 많았다. 고종과 세조의 경우, 주로 왕 개인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를 둘러싼 갈등적 상황(홍선대원군과 명성왕후)이나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를 왕권을 중심으로 다룬 경우가 많았다. 한편 세종의 경우 그가 실시했던 사회, 경제, 문화적 정책, 제도변화에 관련한 내용들이 주로 다뤄졌다. 정조의 경우에도 태생적 트라우마(사도세자 관련), 정치적 리더십이나 사회개혁과 관련한 내용이 많이 다루어졌다. 이외에도 이미 많은 픽션 장르에서 다뤄졌던 연산군, 광해군에 관한 에피소드도 방영되었다.

역사적 위인의 경우, 왕권과 연결된 정치적 리더(정도전, 김종서 등)나 문화예술 사상

표 3. 소재·내용 유형별 분류

구분		횟수	비율	횟수	비율	
역사적 인물	#1	왕(왕비, 기타 왕족)	36	34.6%	65	62.5%
	#2-a	역사적 위인: 확실한 기록이 존재하는 실존 유명인물	21	20.2%		
	#2-b	역사적 유명인물: 기록이 불확실하지만 유명한 인물 · 신화적 존재	3	2.9%		
	#3	숨겨진 인물	5	4.8%		
역사적 사건	#4-a	전쟁(외국과의 전쟁, 삼국시대 국가 간 전쟁)	16	15.4%	28	26.9%
	#4-b	민란(내전) · 국내 갈등	5	4.8%		
	#4-c	주요 정치, 사회, 문화적 사건	7	6.7%		
역사적 유적	#5	역사적 건축물, 장소, 유물 등	8	7.7%	8	7.7%
생활사 · 풍속사	#6	생활사와 풍속사	3	2.9%	3	2.9%
합계		104	100.0%	104	100.0%	

15) 에피소드의 특성상 2개 이상의 유목과 연관이 된 경우, 중복 체크를 피하기 위해 더욱 비중 있게 다뤄진 내용으로 분류하였다. 코딩은 관련 에피소드에 관한 KBS 홈페이지의 프로그램 안내와 VOD를 기본 자료로 실시했다. 2명의 코더에 의해 실시했으며 코더 간 일치도는 96%였다(코딩 작업과 자료수집에 도움을 준 정연주, 정정명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가(송강 정철, 허균), 그리고 군사적 영웅(남이 장군, 이순신 장군 등)과 관련한 에피소드가 등장했다(#2-a). 이 밖에도 확실한 기록은 없지만 구전이나 대중적 상상력 속에 존재하는 유명인물로 임꺽정, 어사 박문수 등이 다뤄졌다(#2-b). 이러한 유명인물 외에도 그간 역사물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숨겨진 인물을 재조명하는 사례들도 있었다. 대한제국 시기의 이하영, 83세에 과거 시험에 도전한 조수삼, 임진왜란 당시 조선에 투항한 일본군(항왜) 사야카 같은 인물이다(#2-c).

역사적 사건에서 타국과의 전쟁을 다룬 유형(#4-a)은 주로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등과 관련되었다. 민란과 국내 갈등의 경우(#4-b), 갑신정변이나 동학농민운동 등이 이에 해당되었다. 이 밖에도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주요 정치, 문화, 사회적 사건의 경우(#4-c), 한글 창제, 고구려의 평양 천도 등이 있었다.

생활사·풍속사와 관련해서는 조선시대의 재판, 조선시대의 식문화, 조선시대의 교육 열풍 등에 관한 에피소드 등이 있었다. 역사적 건축물이나 장소로는 불국사, 창덕궁, 승정원일기, 징비록, 조선왜관 등이 다뤄졌다.

흥미로운 점은 역사적 인물의 경우, 방영 즈음 드라마와 영화에서 관심을 끌던 역사적 유명인물을 재조명하는 경우가 많이 등장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KBS 드라마 <정도전>이 인기를 끈 이후 이 시기 역사를 재검토하거나, 또한 '광해, 왕이 되지 못한 남자' 등은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와 관련하여 특집 구성이 되었다. 또한 영화 <명량>의 개봉시기에는 임진왜란과 관련된 특집 방송(29~32회)을 구성했다. 이 밖에도, 아예 기획특집 '드라마 속 역사인물'(64~68회)은 인기 드라마 속에 재현된 김춘추, 공예, 공민왕, 이의민, 한명회를 중심으로 어디까지가 허구화된 내용인지를 따지면서 역사적 사실성·증거성을 검증하는 식으로 에피소드를 구성하기도 했다.

종합해볼 때 <역사저널 그날>에서 비교적 다양한 소재가 다양한 접근법으로 다뤄지고 있지만, 그래도 다른 역사 다큐에서와 같이 조선시대 '왕'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집권 시기나 왕 개인에 초점을 둔 점을 감안하면 정조에 관한 에피소드가 가장 많이 다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논의한 1990년대 중반에 역사학계에서 시작되어 2000년대 대중매체(TV 드라마)로 확대된 일종의 '정조 신드롬'과 연관시켜 생각해볼 수 있다.

2) 텍스트 분석 결과

(1) 포맷과 형식, 영상스타일

〈역사저널 그날〉은 역사 다큐멘터리와 토크쇼의 장르적 혼합을 표방한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혼종성은 기본 포맷과 형식적 구성 요소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역사저널 그날〉의 기본 포맷을 이루는 형식적 구성 요소는 첫째, 인트로(intro) 영상, 둘째, 스튜디오 토크, 셋째, 만물각, 넷째, VCR(LED) 영상, 다섯째, 패널들의 소회(클로징 멘트)이다. 이는 역사 다큐멘터리의 형식적 구성 요소인 사회자 설명, 자료화면, 전문가 인터뷰 등을 더욱 오락적, 대중적으로 변형한 형태라고도 볼 수 있다.

① 인트로 영상

에피소드 도입부인 인트로 영상은 해당 에피소드를 흥미롭게 소개하는 영상자료 화면이다. 대체로 드라마, 다큐멘터리, 혹은 영화에서 발췌한 영상 장면에 드라마틱한 VO(보이스오버) 내레이션을 사용한다. 만약 적절한 영상자료가 없는 경우엔 만화, 애니메이션, 일러스트의 장면이 사용되기도 한다.

② 스튜디오 토크

스튜디오 토크는 기본적으로 진행자 MC와 패널의 그룹토크 형식으로 진행된다. 크게 역사 전문가(역사학 전공 교수와 교사로 구성된 2인 고정 패널과 1인의 외부 전문가 패널)와 비전문가 패널(시인, 영화감독, 개그맨 등 주로 문화콘텐츠 관련 고정 패널 2인)로 구성된다. 역사 다큐의 전문성을 담보하는 전문가와 이에 대한 개인적 감응을 사담형식으로 표현하는 비전문가의 조합이다.

자유로운 대화 형식과 의견 개진으로 이뤄져있는 것 같지만 나름대로 구조화된 형식을 갖고 있다. 소주제에 따라서 VCR이나 자막으로 주요 토픽이 키워드 형태로 제시되고, 이어 사회자의 질문-패널의 응답을 기본구조로 하나의 세그먼트(segment)를 이룬다. 이와 같이 내용적으로 논리적 전개 틀을 갖고 있지만, 사회자와 패널 간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성과 친밀한 팀워크를 강조하는 한국의 집단 토크쇼의 분위기를 잘 살리고 있다.

친밀성과 상호작용성을 강조하는 분위기는 스튜디오 세트의 미장센에도 잘 드러난다. 프로그램은 커다란 목재 사각 탁자에 둘러앉아 편안하게 담소를 나누는 분위기를 연출한다. 세트도 화려하지 않은 편안한 분위기고 개방된 공간으로 사방을 활용하기도 한다. 중앙의 배경은 창문이었다가 영상자료가 뜨는 곳으로 바뀌기도 한다. 소도구 역시 호롱

불 조명 같은 현대적이면서도 고풍스러운 현대와 과거가 분절되지 않는 느낌을 강조한다.

③ 만물각 코너

‘만물각’은 가장 눈에 띄이는 코너로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는 기존의 다큐멘터리에서의 일종의 전문가 인터뷰 코너 혹은 뉴스의 현장필름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훨씬 오락성과 생동감을 살릴 수 있는 요소로 구성된다. 특정 분야의 외부 초청자는 특정분야 자문과 더불어 인간적 면모를 보이기도 하고 최근 유행하는 ‘빅데이터’ 분석 등으로 현대적 감각과 재미를 불어넣기도 한다.¹⁶⁾

만물각 코너는 기본적으로 전문가 분야나 해당 주제의 현장 분위기를 살린 세팅으로 스튜디오와는 분리된 공간으로 설정된다. 비디오 그래픽으로 사각 가장자리를 처리해서 마치 뉴스에서 화상으로 원격 인터뷰하는 듯한 영상처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스튜디오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스튜디오의 패널들이나 전문가가 토크 세트에 있다가 ‘만물각’으로 이동하기도 한다(공간적 · 시간적 거리가 유연하게 조정됨). 최근 들어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강화하여 만물각은 모의 선거 중계나 역할놀이의 장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④ VCR 코너

기본적으로 에피소드 내의 토퍽 전환을 위해 배치된 코너이다. 만물각처럼 눈에 띄지는 않지만 기존의 역사 다큐멘터리에서 소주제의 자료화면(file footage)을 사용하는 형식으로 사용되며, 그 구성내용은 인트로 영상에서와 같이 픽션물과 사실자료를 혼합한 형태이다.

⑤ 엔딩 코너(그날의 소회)

에피소드의 마무리는 출연 패널의 개인적 소감을 묻는 코너이다. 대부분 몇 개의 단어나 문장으로 역사적 인물이나 상황에 대한 핵심적 요소를 잡아내면서(“한 마디로 ○○를 표현한다면...”) 자신의 개인적 감상이나 의견을 짚막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표현한다. 이때 역사적 인물에 대한 정서적 교감을 강조하여 표현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객관적 사실과 토크의 소란한 분위기를 마무리하면서 정서적 여운을 남기는 마무리 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

형식적 구성요소에 나타난 정보와 오락 장르의 혼합은 영상 스타일에서도 잘 나타난

16) 1회에는 다음 소프트 부사장의 빅데이터 분석, 2회는 한의사가 나와 정조 독살설의 근거가 되는 연훈방 처방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밝히기도 한다. 세종에 관해서는 경영학과 교수가 MBTI로 본 세종의 성격 등을 분석한다. 임진왜란 편 등장한 일본인 교수는 자신이 김경모의 팬이라며 헤드뱅잉을 선보이는 인간적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다. 첫째, 기존 픽션물(드라마,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일러스트)과 사실적 기록물(주요 인물의 영정, 기록서, 유물 등의 클로즈업)이 경계 없이 혼합되어 있다. 이것은 종전의 다큐멘터리에서의 ‘어색한’ 배우의 재연보다 오히려 영상적 완성도와 인지도가 높은 드라마나 만화 컷(대체로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을 전면적으로 사용하는 영상전략이다. 이와 같이 픽션 이미지와 사실 기록 영상이 혼합되어 있지만, 이것이 기본적 정보전달 흐름을 방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입체적이고 유연하게 구성되어 있다.

둘째, 자막처리 역시 정보 장르(뉴스, 다큐, 강의 프로그램)의 정보전달 기능과 오락 장르의 자막효과(시청자와의 교감, 유머)를 동시에 갖고 있다. 강조할 내용, 질문, 정리, 주제 전환 등을 다양한 분위기의 자막(글자체, 폰트 크기, 색깔이 다르고 디자인이 들어간 자막)을 사용하여 정보전달에 도움을 준다. 이 밖에도 뉴스, 정보 프로그램에서 유행하는 멀티 스크리닝(multi-screening), 그래픽 윈도우 처리, 정보그래픽(지도, 도표 등)도 다양하게 사용한다. 한편 예능 프로그램의 만화, 일러스트 등도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만화의 한 칸에 설명하는 교수의 얼굴을 집어넣기도 하고 편집화면이 많아지고 시각적으로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기도 하고 스튜디오 중앙에 배치된 LED 화면을 다양하게 활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현실과 허구, 뉴스와 예능쇼의 영상 스타일을 뒤섞는 혼종성을 보여준다.

3) 대화분석 결과

(1) 무거움과 가벼움의 혼합: 정보와 오락

<역사저널 그날>은 첫 회에 ‘역사 토크쇼’를 다큐와 사극 사이, 정보와 오락 장르 사이에 위치시키면서 “사극만큼 재미있는 신개념 역사 토크쇼, 역사저널 그날입니다”, “결코 무겁지 않은 수다”(최원정 MC)라는 표현을 통해 전통적 역사 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을 ‘대중적 어필’에 두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장르 혼종성은 곧 자유로운 역사적 상상을 의미하기도 한다. 사도세자가 정조의 왕위 계승을 염두에 두고 스스로를 죽음으로 몰아갔을 거라는 추측을 하면서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가 다큐 싫어서 토크로 간 건데, 토크를 지나서 영화로 가버리네요”(류근) 등으로 다큐-토크-사극 등의 경계를 오가는 장르 혼종성을 강조한다.

한편 패널들의 고정 캐릭터화가 질문과 응답 내용에 일종의 구조화된 틀을 제공하고 있다. 전문가 고정 패널인 신병주 교수는 역사 전공자로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딱딱한 이야기를 쉽게 풀어내는 편안한 캐릭터이다. 한편 비전문가 패널인 류근 시인은

문학적이고 낭만적 기질의 진보주의자, 이해영 영화감독은 모던하면서도 인간적인 캐릭터로 시청자들에게 공감과 재미를 준다.¹⁷⁾ 패널들은 각기 자신의 캐릭터에 맞는 질문과 반응을 스튜디오 현장에서 나누면서 역사를 재미있는 ‘수다’로 만들고 있다. 이것은 최근 토크쇼나 예능 버라이어티쇼에서의 패널들의 ‘고정 캐릭터화’(김남일, 2008) 전략과도 유사하다. 특히, 비전문가 패널들의 일상, 외모, 성격과 관련한 농담은 자칫 딱딱한 분위기를 경쾌하게 이완시키는 대표적 오락성 기제라고 볼 수 있다.

① 유머 강조

기본적으로 대화의 구조는 정보전달 차원에서는 VCR(혹은 인트로) 화면 시청 → MC 질문(소주제 방향 설정) + 비전문가 질문(객관적 설명 요청) → 전문가 패널 답변 → 비전문가 패널, MC 반응(reaction)으로 이뤄진다. 오락적 차원에서는 비전문가 패널의 상호작용적 질문-응답-반응이 이어진다. 첫 번째가 정보전달의 전형적 토크라면, 두 번째는 예능토크쇼의 오락성(농담, 솔직한 자기표현, 친밀감 과시)을 강조한 대담 양식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정조의 표준 영정 논란을 두고도 전문가의 객관적 설명(정조 어진의 실물 모습 전하지 않음)에 이어서 바로 오락적 차원에서의 유머(“드라마에서의 이서진 배우를 생각하다가 똥똥한 이해영 감독님으로 오버랩될 수 있는”(최원정), “비만도 아름다울 수 있어요”(이해영)) 식의 농담이 오고가기도 한다(1편).

비극적인 역사적 사실 설명으로 침울하게 가라앉은 분위기도 바로 일상사의 가벼운 농담으로 이완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장수한 아버지 영조와 사도세자의 관계를 엘리자베스 왕과 찰스 황태자의 관계와 대비하면서 “엘리자베스 왕이 너무 오래 사시는 바람에 찰스 황태자, 영원한 황태자죠”, “저는 찰스 황태자 정말로...”, “마음 아파요?” 식의 농담이다(1편).

② 개인적 일화, 성격, 외모 관련 농담

역사적 인물의 일화를 자신의 개인적 경험과 성격, 외모 등(캐릭터)과 연관시키는 것도 웃음을 유발하는 오락적 기제이다. 2회 정조 독살설의 ‘연훈방 치료법’을 논의하는 부분에서도 류근의 연훈방에서 수은가스가 나온다는 설명에 “저도 사실 연탄가스 많이 마셨어요”라고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이야기 하면 바로 짝패토크로 이해영이 “연탄, 연탄세대. 그때 세대시죠?”라는 식의 농을 걸기도 한다. 류근-이해영, 최태성-이윤성 간의 일종의

17) 이후에 합류한 고등학교 교사인 최태성 교사는 전문가이면서 젊고 순수해 보이는 학생 이미지, 방송인 이윤성은 좀 학식 있는(박사 타이틀을 가진), 소시민적이고 마음도 몸도 약한 약골 이미지를 강조한다.

동질집단 간(친구 또래) 토크 ‘짜패’을 통해 개인적 외모와 성격에 관한 웃음을 유발한다.

개인적 경험이나 일화를 덧붙이면서 그야말로 ‘대학가 맥주집’ 사담 분위기를 살리는 사례는 자주 사용되는 오락화 장치이다. 이와 같이 객관적 사실 확인과 설명성 질문-응답, 비전문가 패널을 중심으로 한 개인적 사담 형식의 농담 등은 무거움과 가벼움의 변주 속에서 자칫 딱딱하고 지루할 수 있는 역사 지식전달에 생동감을 불려일으키는 메커니즘이다.

(2) 상호작용적 지식전달

① 시청자의 눈높이에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전문적 지식을 일방향적 지식전달 양식이 아닌, 상호작용적이고 탈권위주의적 분위기에서 전달하는 ‘토크쇼’적 대담양식은 비전문가와 전문가의 질문-응답-반응 패턴에 잘 나타나고 있다. 시청자의 눈높이에서 입장에서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비전문가 패널이 던지면 이에 대해 전문가 패널의 상세하고 ‘친절한’ 답변(설명)이 이어지고 이어지는 비전문가 패널 간의 정서적 반응으로 이어지는 패턴이다.

여기서 출연진의 고정 캐릭터화가 질문-응답의 성격을 결정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 류근 시인과 이해영 감독은 역사 비전문가 일반인의 입장을 대변한다. “사실 그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좀 취약하고 잘 모르는데요. 그래서 그냥 정말 시청자의 눈높이에서 역사를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 눈높이에서 편안하게 막 접근하겠습니다”(이해영), “낮술 먹다가 외로워지는, 역사 책 읽는 시인 류근입니다”라는 식이다. 또한 중간 중간 “일반인의 입장에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등의 서두로 질문을 시작하면서 시청자 입장을 대변한다.

② 과거를 현대적 개념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역사적 지식의 상호작용적 전달의 가장 효과적 방식 중 하나는 과거의 사건이나 상황을 현대적이고 일상적 용어로 전환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과거 역사를 다루고 있지만, 현대로 소환하여 그 현대적 의미를 재해석하고 이해하기 쉬운 일상적 개념으로 바꿔 설명하는 것이다. 대체로 “지금으로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쉽게 설명해주세요” 등으로 현대적 재해석을 한다.

이는 정조 때의 화성공사와 관련한 대담에서도 잘 나타난다. 신병주 교수에게 현대적 재설명을 요구하고 확인하는 비전문패널의 질문과 반응(#2, #6)에 사회자의 맞장구(#9) 등이 이어지고, 그 사회적 의미에 대한 전문가의 추가 설명(#12)과 비전문가의 반응(#13)

표 4. 현대적 용어로의 변환

1.	신병주: (...) 또 하나의 공사가 단축된 원인으로는 급료를 지불해요. 예나 지금이나 아무것도 주지 않고 시키면 절대 일 안 하는데.
2.	류 근: 일자리 창출이네요.
3.	신병주: 일자리 창출.
4.	이해영: 돈은 사람을 촘촘게 하죠.
5.	신병주: 그건 나름대로 정도도 상당히 그런 것까지도 고려를 해서 화성공사가 아주 빨리 이뤄지도록 한 거죠.
6.	류 근: 아니, 그분들이 정규적이었나요?
7.	이해영: 정규직은 아니겠죠?
8.	류 근: 비정규직이라면 공사 기간을 늘리는 것이 유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9.	최원정: 그것도 그러네. 진짜 일자리를 오랫동안 유지시켜주는...
10.	신병주: 조선시대 백성들은 지금보다는 순진했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는.
11.	이해영: 근데 이렇게 노동에 대한 대가로 급료를 지불하는 게 이때가 처음이었던가요?
12.	김문식: 그게 획기적인 거죠. 18세기부터 나타나기는 해요. 급료를 주는 사례가 없지는 않은데. 이때는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거죠.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 유입 설명) 노동자로 이제 변화하는 거죠. 무료 동원이죠. 그래서 임금 노동자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난다고 봅니다.
13.	이해영: 노동자의 인권 향상이 획기적으로 됐다고 할 수 있는 거네요.

주 1: 화성공사 단축 이유, 2편.

주 2: MC = 최원정; PP (professional panel) = 신병주, 김문식; NPP (non-professional panel) = 류근, 이해영.

이 이어진다. 이와 같이 현대적 용어로 쉽게 재설명을 요청하는 경우는 이후의 에피소드에서도 자주 나타난다.¹⁸⁾

(3) 역사 속 인물에 대한 감정이입

역사적 인물과 사건 배후의 개인적·심리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역사적 인물에 대한 감정이입과 몰입을 유도하는 담화는 역사의 정서적 전환의 대표적 양상이다. 이는 딱딱한 정보전달보다는 인물 내면의 생각과 심리를 함께 고민해 보고 시청자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제작진의 의도와도 맞아떨어진다(〈경향신문〉, 2014, 7, 14).

18) 예를 들면 신병주 교수의 1791년 정조의 신해통공에 대한 설명(2회)에서도 류근 시인이 바로 이어서 “그 신해통공이란 게 ‘요즘으로 말하면’ 재벌의 독점 금지, 독과점 금지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쉽게 설명해주세요”라는 식으로 이해를 돕는 재설명을 요청한다.

① ‘상처적 인간’ 정조에 대한 인간적 공감

사도세자의 죽음과 관련된 정조의 심리적 트라우마는 <역사저널 그날>의 여러 에피소드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다. 대부분 정조의 고독과 불안, 고뇌에 대해 인간적 공감을 표현하는 내용이다.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는 극적 장면의 VCR 인서트 이후, 사회자가 먼저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고(#1), 전문가 패널의 설명(#2)과 비전문 패널의 정서적 반응, 감정적 표현(#5) 등이 주를 이룬다.¹⁹⁾

이후 정조의 인간적 비애는 ‘11세라는 어린 나이에 겪었던 사도세자의 뒤주에서의 죽음’, ‘모계 콤플렉스’, ‘3부자의 엇갈린 운명’ 등 가족적 갈등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며 정조가 현대적으로 어필하는 이유들을 양면적, 입체적 인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류근은 “정조라는 캐릭터가 사랑받는 이유는 아무래도 사람들의 기본적 욕망과 정조라는 인물의 좌절이, 아쉬움이 투입되어가지고 거기에 애정을 받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제적 인물이고 상처적 인물이고…”라고 말한다. 이어 사회자의 공감적 반응으로 ““상처적”이라는 단어 굉장히 좋았습니다”가 이어진다. 그리고 조금은 예외적으로 전문가 패널의 개인적 이야기와 소회(정서적 표현)가 등장하기도 한다.

표 5. 인간적 공감

1.	최원정: 네, 죄인의 아들, 왕이 되다. 지금 방금 보신 게 조선의 전성기를 이룩했던 왕 정조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할 텐데. 뭔가 유년시절부터 트라우마가 가득한 사람인 것 같아요.
2.	김문식: 네, 그렇죠. 지금 그 사도세자가 이제 뒤주에 갇혀서 돌아가실 때 정조 나이가 11살.
3.	최원정: 11살….
4.	김문식: 그러니까 아주 어린 나이죠? 그로부터 15년간 이제 동궁시절을 보내면서 사도세자를 죽게 했던 그런 정치세력에 둘러싸이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밤에 잠을 잘 때도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항상 옷을 입고 잔다던지, 또 어떤 이야기를 하던 감시의 눈길이 있어가지고 부정적인 이야기가 쉽게 흘러나간, 이런 상황이죠.
5.	류 근: 세자 시절의 정조를 생각하면 그 일안고공(一雁高空)이라는 사자성어가 생각이 나요. 높은 하늘에 떠있는 기러기 한 마리, 어떤 그 기러기 떼에서 이탈한 기러기 한 마리. 아주 고독한 신세였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즉위식 첫 날, 앉자마자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걸 완전 돌직구인데….
6.	최원정: 복수의 신호탄이죠.
7.	류 근: 노론 대신들은 피바람이 한 번 몰아치지 않겠나, 이런 두려움에 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 1: 정조의 트라우마, 1편.

주 2: MC = 최원정; PP = 김문식; NPP = 류근.

19) 낭만적인 시인 기질의 류근의 감정적 반응은 역사저널 전편에 걸쳐 자주 나타난다. 사도세자 관련 대화에서도 “감정이입되고 있어요, 류근 씨는 지금…”(최원영), “떡먹해집니다”(류근), “예, 눈물이 그렇그렇, 눈가가 촉촉해지네요”(최원영) 등이다. 류근이 임진왜란 당시 백성들의 딱한 처지에 대한 눈물, 권력층에 대한 분개 장면이 많이 회자되고 있다. 최원정 아나운서 역시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흘리며 진행이 중단되는 등 감정몰입의 순간이 많은 편이다.

② ‘애민 군주’ 정조에 대한 인간적 감동

‘개혁군주’, ‘애민 군주’로서의 정조의 모습에 대한 대화 도중에는 인간적 감동이 자주 표현된다. 애민 군주로서의 정조의 면모에 대한 감동은 ‘상언과 격쟁’ 부분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 설명(#1, #3, #5) 이후 전 패널들의 감동은 영상으로도 표현되며,²⁰⁾ 특히, 정조의 기록을 직접 낭독하고 재확인하는 류근 시인의 감정적 반응(#7)은 감정이입의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표 6. 인간적 감동

1.	김문식: 그래서 이제 경호실장이 포도대장인데요. 네, 포도대장이 백성들이 너무 가까이 오니까 경호상의 문제가 있다.
2.	최원정: 네.
3.	김문식: 그래서 백성들이 구경나오는 것을 금지하자, 이런 요구를 해요.
4.	최원정: 아.
5.	김문식: 그때 정조의 대답이, 저들은 나의 적자이다, 그래요 (visual: 폴샷. “무릇 팔방(八方)의 백성은 모두 나의 적자(赤字)인데...”) 갓난아이 즉, 나라의 적자인데, 그러니까 내가 저들을 보살펴야 한다. (visual: “백성들은 나의 갓난아이와 같다. 내가 백성들을 보살펴야 한다”) 그래서 민원을 청취했다는 거죠. 그래서 민심을 알아야, 이제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있으니까 정책을 제대로 펼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막지를 않죠. 기본적으로는 상언이나 격쟁이 계속 됩니다, 정조 시대는.
6.	최태성: 네, 대신들도 말렸대요. 그때 정조대왕은 이렇게 반론하셨다고 합니다. 들어드릴게요. (visual: 드라마 영상자료. “소민이 상언을 하는 것은 매우 외람되고 난잡한 행동입니다. 상언과 격쟁을 받지 마소서”, “듣거라, 저 말할 것 없는 자들이 억울함을 가슴에 품고 달려와 하소연하기를 어린 자식들이 하소연하듯이 하니, 그렇게 만든 자가 잘못이지 저들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 그렇게 만든 자들이 잘못이다”)
7.	류 근: 저들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 애민 군주의 진정성이 200년 시공간을 넘어서 가슴에 딱 감동을 안깁니다. 잠깐, 진정한 소통과 공감이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8.	최원정: (visual: 반응샷)

주 1: 상언과 격쟁, 74회.

주 2: MC = 최원정; PP = 최태성, 김문식; NPP = 류근.

(4) 과거 역사를 통한 현실 비판

현재의 정치적 사회적 모순과 문제점을 과거 사건과 인물을 통해 환기시키는 표현도 자주 등장한다. 이것은 역사물을 통한 정치현실 환기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를 통

20) 일반적으로 스튜디오의 현장성과 대담 프로그램의 안정된 정형화된 구도(대담자 MCU 원샷과 청취자 오버-더-숄더 샷)를 사용하지만 감정적, 극적 몰입의 경우 전체 패널을 폴샷으로 보여주고 개별 패널의 CU를 보여주는 등의 사례이다. 이 밖에도 전체 스튜디오의 분위기를 패닝, 틸팅, 지미집으로 활동적으로도 보여준다.

한 현실비판은 정치적 리더십, 기득권자 질타, 세대 풍자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기득권의 정치자금’, ‘검은 커넥션’, ‘정경유착 동체’, “그전까지 분명히 법이 느슨했기 때문에 조세 갖고 장난치기 되게 좋았는데” 등의 표현이 등장한다.

흥미로운 점은 민감한 정치적 이슈의 경우, 개인적 감정 토로 형식으로 ‘○○의 의견’, ‘○○의 생각’으로 괄호 치기를 한다. 역사 프로그램의 객관성은 유지하되, 개인화된 의견 형태로 감정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특히, 비전문가 패널리스트인 류근 시인, 이해영 감독의 경우 이런 개인적 의견 표현이 많다. ‘우리’같은 남인들, “역시, 사도세자는 우리 과였던 것 같아요” 등을 표현하며 약자, 소수자의 편에 선다. 특히, 민심과 멀어진 무능한 왕, 권력층의 비리에 대해서는 사적인 감정 토로 형식으로 분노를 표현한다. 시청자의 정치적 불만을 해소하는 대리만족을 주기도 한다.

‘정조, 소상인의 눈물을 닦아주다’ 편에는 금난전권 폐지와 신해통공에 관해 자세한 설명이 나온다. 여기 ‘조선시대가 나아갈 방향, 시장의 경제논리’라는 제목하에 정조의 개혁 정책의 의미를 해석한다. 정조의 개혁정치를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조망하면서 18세기 조선에서 이미 근대국가의 토대인 시장경제, 자본주의의 태동이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정조와 세종의 유사성을 강조하면서 조선의 ‘위대한 왕’ 정조를 부각시키고 있다. 조선의 르네상스(15세기와 18세기), 호학군주(집현전과 성균관), 애민 사상(준엄정과 용비어천가), 민주적 소통 정책(조선의 ‘국민투표’²¹⁾와 직접적 민의수렴을 위한 ‘격쟁’) 등이 자연스럽게 비교된다. ‘세종대왕’과 같은 격으로 ‘정조대왕’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대답이 나오기도 한다.

6. 결론

〈역사저널 그날〉은 역사 다큐멘터리와 토크쇼라는 장르 혼종성을 새롭게 보여준 프로그램이다. 이 연구는 ‘역사 토크쇼’라는 혼종 장르에서 기존의 사실 장르와 오락 장르가 어떻게 융합되고 있는지, 또한 역사 접근에서의 정서적 전환 양상이 어떻게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시기별, 소재별 특성에서는 기존의 역사 다큐멘터리와 큰 차별성을 보이지

21) ‘세종-1430년 조선 첫 국민투표 하던 날’(18회)에서는 서양 최초의 여론조사가 1824년 실시된 미국 대통령 선거 모의 투표라고 밝히면서 ‘서양보다 394년 앞선 조선의 국민투표’, ‘조선의 민주주의’가 이미 15세기 조선에서 실시되었다는 내용을 소개한다.

는 않았다. 주로 조선시대 중심의 왕과 역사적 위인 중심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성요소와 영상 스타일에서는 정보와 오락 장르의 혼합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대화분석에서는 첫째, 무거운 내용과 가벼운 유머의 혼합, 둘째, 시청자의 눈높이에서의 표현 방식, 셋째, 역사 주인공에 대한 감정이입, 넷째, 과거를 통한 현실 비판의 패턴을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저널 그날〉은 역사적 사실성(증거)을 중시하는 역사 다큐의 기존 양식과 집단 토크쇼의 오락적 기제(고정 캐릭터화와 사담 형식의 유머, 일상성 대화)가 자연스럽게 뒤섞여 있다. 기존의 딱딱하고 무거운 역사 전달 양식에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일종의 무거움과 가벼움의 혼합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시청자의 눈높이에서 전문적 지식을 쉽게 표현하고 있다. 기존의 권위적이고 일방향적 지식전달과는 달리 일반인 눈높이에 맞추고 있다. 토크쇼 패널과의 친근감과 일치감을 강조하면서 시청자를 재미있는 역사 수업을 듣는 학생의 입장으로 포지셔닝하는 대중화 전략이다. 지식습득 과정에 시청자를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한다. 대체로 ‘일반인 눈높이에 맞춘 질문’과 일상적 용어로의 전환이라는 대화 패턴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셋째, 역사적 인물에 대한 감정이입이다. 주인공의 인간적 측면과 입체적 캐릭터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면서 이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높이고 있다. 과거의 인물을 마치 현재를 살아가는 동시대적 인물과 사건처럼 ‘생생하게’ 체험하게 만들고 감정적 몰입을 하게 하는 대답들이 많이 등장한다. 대표적 예로 ‘정조의 인간적 고뇌, 애민 사상 등에 대해 감정을 몰입하게 하는 대답을 들 수 있다.

넷째, 역사적 과거를 통해 현실을 비판하는 양식이다. 특히, 정치적 리더십, 권력층(기득권자) 조롱, 세대 풍자 등에 대한 비판이 자주 등장한다. 일종의 과거를 통한 현실 정치 환기 기능이다. 특히, 이런 논의들은 비전문가 패널의 사담 형식으로 자유롭게 표출되면서 현재의 정치적, 사회적 모순에 대한 일반 시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일종의 대리만족을 느끼게 한다.

〈역사저널 그날〉에서 ‘정조’를 다룬 방식을 보면 소재와 내용 면에서는 기존 역사 다큐와 큰 차이가 없었지만 이를 다루는 방식에서는 많은 차별성을 보였다. 주로 다룬 내용은 정조의 인간적 고뇌, 개혁군주와 애민 군주로서의 정조의 이상적 리더십, 그리고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 등이다. 차이점은 ‘토크쇼’적 요소를 적극 활용하여 시청자에게 ‘정조의 인간적 상처와 고뇌, 애민정신의 진정성에 대한 감정몰입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그 날’이라는 단면을 줌인(zoom-in) 하면서 다양한 드라마, 영화 장면을 혼합하여 드라마틱한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여기에 토크쇼 패널들이 개인적 감정 토로의 형식으로 정조에 대한 애정과 존경, 정조의 죽음에 대한 아쉬움 등을 강렬하게 표현하면서 시

청자의 감정이입을 유도한다. 또한 자유로운 사담 형식을 통해 현재 한국사회의 개혁적 리더십에 대한 국민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다.

〈역사저널 그날〉은 장르 혼종성(정보와 오락, 사실과 픽션), 정서적 접근(과거 인물에의 정서적 공감대 형성), 과거를 통한 현재의 비판(과거와 현재와의 접점을 강조) 등을 통해 새로운 역사 접근방식을 선보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러한 양상들이 서로 중첩되어 있다는 점이다. 장르 혼종성이라는 형식적 파괴와 역사에 대한 상상적, 정서적 접근이라는 내용적 새로움은 상호 연관되어 있다. 다큐와 토크쇼, 다큐와 사극의 경계를 허물면서 더욱 자유로운 역사적 상상력과 대중친화적 전달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토크쇼의 사담 형식을 빌어서 민감한 정치적 이슈들에 비판과 감정표출을 자유롭게 하고 역사적 인물에 대한 감정이입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역사 토크쇼는 현재 한국사회의 탈권위주의적 대중정서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역사 다큐라는 지식전달 장르에 ‘예능 토크쇼’의 형식을 접목한다는 발상이 신선하고 무리 없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현재 한국 사회 대중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 특정 학문 분야의 전문가의 권위적이고 일방향적 정보전달보다는 상호작용적이고 감정이입의 정보전달방식이 선호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측면도 있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란 정치 민주화를 넘어 한국 사회가 성취해야 할 경제 민주화, 문화 민주화라는 시대정신을 말한다(최장집, 2002).

둘째, 최근의 디지털 영상 문화 속에서 변화하고 있는 역사에 대한 인식변화이다. 어차피 역사라는 것이 과거 사실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구성물이라면, 그것이 팩트이건 픽션이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시각이다. ‘역사 토크쇼’라는 형식을 통해 역사적 사실과 허구, 객관적 증거성과 주관적 해석이 자연스럽게 공존할 수 있는 것은 역사 프로그램 제작자나 수용자에게 허구와 사실이 공존하는 역사서술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역사저널 그날〉은 과거를 현재의 감성으로 연결하고 정서적으로 체험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 있고 신선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역사의 정서적 전환은 ‘과거 그 자리에 그대로 고착된 역사’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우리들의 감정과 정서적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마치 그 시간을 다시 ‘체험’하는 듯한 느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몇 가지 문제는 남는다. 단편적이고 감정적이고 사적인 역사 담론에서 놓치게 되는 역사적 흐름과 구조에 대한 더욱 큰 이야기들, 새로운 역사 소재와 시각의 개발, 지나치게 감성과 감정을 강조하는 힐링성 역사 토크의 문제들이다. 이는 최근의 한국

저널리즘과 시사토크쇼의 지나친 ‘감정주의’에 관한 논의와도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과거의 인물에 대한 현대적 해석과 감정이입이 혹시 우리의 지나친 ‘현재적’ 감수성으로 과거를 왜곡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질문도 필요하다. 혹 우리와 전혀 다른 문화적, 심리적 내면 풍경을 갖고 ‘그날’을 살아갔을 과거의 인물을 현대의 잣대로, 현대의 감성으로 임의로 감정이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쩌면 그런 질문과 성찰들을 이끌 만큼 ‘과거’와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역사 토크쇼>를 비롯한 TV 역사물의 성과와 의미일지도 모른다.

■ 참고문헌

- 강진숙 (2014). 미디어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한 시론: ‘미디어정동(情動, affectus) 능력’의 개념화를 위한 문제제기. <커뮤니케이션 이론>, 10권 3호, 195-221.
- 김기덕 (2002). 역사가와 다큐멘터리: <역사스페셜>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학연구>, 65호, 99-129.
- 김기봉 (2000). <역사란 무엇인가>를 넘어서. 서울: 푸른 역사.
- 김백철 (2011). 1990년대 한국 사회의 ‘정조신드롬’ 대두와 배경: 나약한 임금에서 절대계몽군주로의 재탄생. <국학연구>, 제 18집, 187-230.
- 김수정 (2010). 개인주의에서 민족주의까지: TV 사극 <선덕여왕>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4권 2호, 70-109.
- 김예란 (2010). 감성공론장: 여성 커뮤니티, 느끼고 말하고 행하다. <언론과사회>, 18권 3호, 146-191.
- 남성우 (2006). 역사다큐멘터리와 한문학의 만남: KBS <역사스페셜>을 중심으로. <한국한문연구>, 37권, 327-335.
- 노순동 (2007, 10, 22). 2007년 정조가 귀환하는 까닭은. <시사IN>, 6호. URL: <http://m.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97>
- 박지영·김예란·손병우 (2014). 종편 시사 토크쇼와 사담의 저널리즘: <쾌도난마>를 중심으로. <언론과사회>, 22권 2호, 5-63.
- 서재석 (2001). TV의 역사 대중화: 디지털 시대의 역사읽기. <역사비평>, 57권 (2001 겨울호), 310-333.
- 손희정 (2015). <광해>와 <명량>의 흥행은 무엇의 표상인가?: 폐소공포증 시대의 천만 사극과 K-내셔널리즘. <영화연구>, 65권, 109-142.
- 신명희·김창숙 (2006). 역사 다큐멘터리 영상미학의 수용성 연구. <언론과학연구>, 6권 3호, 300-341.
- 원용진·주혜정 (2002). 텔레비전 장르의 중첩적 공진화: 사극 <허준>, <태조왕건> 분석을 중

- 심으로. <한국방송학보>, 16권 1호, 300-332.
- 유희원 (2014). KBS '역사저널 그날': 시인과 영화감독이 즐겁게 역사를 말해요. <신문과 방송>, 524호, 77-81.
- 이기형 (2007). 사극의 변화하는 풍경과 역사를 재현하는 관점들을 맥락화하기: <별순검>과 <한성별곡>을 중심으로. <방송문화연구>, 19권 2호, 9-33.
- 이종수 (2015). <포스트 텔레비전 시대의 다큐멘터리 트렌드>.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이희은 (2014). 감응 연구의 관점에서 본 '현재'의 부재. <언론과 사회>, 22권 1호, 35-78.
- 임지현·육영수·최갑수 (1998). 역사의 대중화, 대중의 역사화. <중앙사론>, 제 10·11집, 655-676.
- 정수영 (2015). 공감과 연민, 그리고 정동(affect): 저널리즘 분석과 비평의 외연 확장을 위한 시론. <커뮤니케이션 이론>, 11권 4호, 38-76.
- 주창윤 (2004). 역사드라마의 역사서술 방식과 장르형성. <한국언론학보>, 48권 1호, 166-187.
- 최장집 (2002).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서울: 후마니타스.
- 하효숙 (2004). 역사, 젠더, 그리고 텔레비전 역사드라마: <대장금>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2호, 71-117.
- Agnew, V. (2007). History's affective turn: Historical reenactment and its work in the present. *Rethinking History: The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e*, 11(3), 299-312.
- Ahmed, S. (2004). *Cultural politics of emotions*. Edinburgh, UK: Edinburgh University Press.
- Andress, D. (1997). Beyond irony and relativism: What is postmodern history for. *Rethinking History: The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e*, 1(3), 311-326.
- Baym, G. (2013). Transformations in hybrid TV talk: Extended interviews on The Daily Show(.com). In M. Ekstrom, A. Tolson, & M. Ekstrom (Eds.), *Media talk and political elections in Europe and America* (pp. 63-86). London, UK: Palgrave Macmillan.
- Clough, P. T. (2010). The affective turn: Political economy, biomedicine and bodies. In M. Gregg & G. J. Seigworth (Eds.), *The affect theory reader* (pp. 206-225).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 Collingwood R. G. (1946). *The idea of history*.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 Creeber, G. (2015). *Television genre book* (3rd ed.). London, UK: Palgrave Macmillan.
- Crowell, S. G. (1998). Mixed messages: The heterogeneity of historical discourse. *History & Theory*, 37(2), 220-244.
- Haraway, D. J. (1997). *Modest_Witness@Second_Millennium*. New York, NY: Routledge.
- Hemmings, C. (2005). Invoking affect: Cultural theory and the ontological turn. *Cultural Studies*, 19(5), 548-567.
- Heritage, J. (2011). Conversation analysis: Practices and methods. In D. Silverman (Ed.), *Qualitative research: Issues of theory, method and practice* (3rd ed., pp. 208-230). London, UK: Sage.
- Hunt, T. (2006). Reality, identity and empathy: The changing face of social history television. *Journal of Social History*, 39(3), 843-858.
- Ilie, C. (2001). Semi-institutional discourse: The case of talk-show. *Journal of Pragmatics*, 33(2), 209-254.
- Koivune, A. (2001). Preface: The affective turn? In A. Koivunen & S. Paasonen (Eds.), *Conference proceeding for affective encounters: Rethinking embodiment in feminist media*

- studies* (pp. 7-9). Turku, Finland: University of Turku, Series A, No. 49.
- McCalman, I., & Pickering, P. A. (2010). From realism to the affective turn: An agenda. In I. McCalman & P. Pickering (Eds.), *Historical reenactment*. Basingstoke, UK: Palgrave Macmillan.
- McEloy, R., & Williams, R. (2011). The appeal of the past in historical reality television: Coal house at war and its audiences. *Media History*, 17(1), 79-95.
- Mittell, J. (2004). A cultural approach to television genre theory. In R. Allen & A. Hill (Eds.), *The television studies reader* (pp. 151-181). London, UK: Routledge.
- Neale, S. (1980). *Genre*. London, UK: British Film Institute Publishing.
- Patrona, M. (2012). Journalist on the news: The structured panel discussion as a form of broadcast talk. *Discourse & Society*, 23(2), 145-162.
- Rosenstone, R. A. (1998). *Visions of the past: The challenge of film to our idea of histor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Silberblatt, A. (2007). *Genre studies in mass media: A handbook*. Armonk, NY: M. E. Sharpe.
- Trigg, S. (2014). Introduction: Emotional histories-beyond the personalization of the past and the abstraction of affect theory. *Exemplaria*, 26(1), 3-15.
- Turner, G. (2001). Genre, Format and Live Television. In G. Creeber (Ed.), *Television genre book* (pp. 6-7). London, UK: British Film Institute.
- Turner, G. (2015). The uses and limitation of genre, In G. Creeber (Ed.), *Television Genre Book* (3rd ed., pp. 7-8). London, UK: Palgrave Macmillan.
- White, H. (1981). The value of narrativity in the representation of reality. In W. J. T. Mitchell (Ed.), *On Narrative* (pp. 1-23). Chicago, IL: Chicago University Press.
- Woodffitt, R. (2005). *Conversation analysis and discourse analysis: A comparative and critical introduction*. London, UK: Sage.

최초 투고일 2016년 2월 13일

게재 확정일 2016년 5월 13일

논문 수정일 2016년 5월 20일

Genre Hybridization in TV History Talk-Show: An Analysis of “*History Journal, The Day*”(KBS1)

Jongsoo Lee

Professor, Hanyang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recent changes shown in new hybrid genres of television historical programs. This study argues that the recently broadcast Korean TV historical talk-show, ‘*History Journal, The Day*’, (KBS1) is a specific indicator of genre-blending and history’s “affective turn”. In order to examine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this hybrid genre, this study analyses the series “*History Journal, The Day*” throug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s. 104 episodes broadcast during October 2013-December 2015 were analyzed in terms of historical period and themes. Several episodes dealing with King Chungcho, the most popular Korean King from the Chosun dynasty were closely analysed through conversational analysis. The resulting analysis shows hybrid genre characteristics and history’s “affective turn” in terms of formats, visual style, and verbal content. In conversational analysis, several interesting patterns were found: the blending of serious topics and humor, the sympathetic identification with the historical character and the rendering of historical past to criticise the conflicted present. This study discusses the social, political and cultural implications of this hybrid approach in Korean historical programs.

Keywords: genre hybridization, history talk-show, documentary, history’s affective turn, conversation analysis